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중

순창군, 총사업비 58억원 들여 연내 준공 목표 농촌유학 프로그램 참여 가족 정착 위해 추진

순창군이 농촌유학 프로그램 참여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인계면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의 건축, 전기 등 공사 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며, 이곳에는 커뮤니티 시설 1동과 14세대의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6월 팔덕면에 총 8세대 4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인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했으며, 현재 기초공사를 마치고 건물 1층 골조 공사를 진행 중이다.

두 지역의 거주시설 조성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58억원으로, 올해 안으로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적성면에도 8세대 규모의 거주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올해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어 순창군 전역에 걸친 농촌유학 인프라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군은 관내 모든 면 단위 지역에 거주시설 건립을 목표로 지속적인 사업부지 모색과 예산 확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농촌유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군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유학생 모집을 연 2회로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2일 발표된 2024년도 2학기 농촌유학생 모집 결과에서 9명을 추가 확보해, 순창군은 총 50명의 농촌유학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촌유학 가정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순창군이 농촌유학을 선택하는 가정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자체-대학 지역혁신사업 선정

남원바이오산업연구원, 곤충 활용 미래농업 신성장동력 육성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협력재단에서 추진하는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RIS는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연구원에서 선정된 사업 분야는 '곤충 자원을 이용한 전북 미래농업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산업연구원이 바이오 분야로 확장하는 중요한 시기에 곤충 관련 연구 사업에 선정되어 그 의미가 크며, 사업은 국비 지원금 2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 12월까지 추진, 전북대학교(농생물학과 응용교수)가 주관해 5개 기관(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원광대학교, 서우엠에스, 영인바이오)이 참여한다.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품질 표준화 근거한 대량 사육 표준화 가이드라인 모델 개발, △당알콜 활용 갈색겨저리 유충 가공기술개발 저장 기간 연장 기술 개발, △표준 사육환경 시설에서 사육한 갈색겨저리 사육 단계별 성분 조사 및 검증, △사육된 갈색겨저리에서 식용 곤충 활용 조미 소재 정량화 및 최적화 개발, △갈색겨저리 사육환경 표준화 모델 구현, △갈색겨저리 이용 팻푸드 개발 및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남원시와 연구원은 이번 RIS 선정을 통해 곤충연구 초석을 다지고, 특히, 남원 곤충 거점 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곤충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HOME밥하자' 참여자 선착순 모집

남원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HOME밥하자' 참여자 60명(단기 20명, 중기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HOME밥하자는 △동기부여(Happy) △자신감 회복(Okay) △대인관계 도전(Making1) △사회회계 도전(Making2) △즐거움 시작(Enjoy) 단계로 구성, 참여자들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사회에 진입해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자는 남원 관내 미취업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쉼터 등의 입(퇴)소 청년, 복합이탈 청년, 지역특화 청년 등으로, 6개월 이상 취업과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세~45세 청년을 참여자로 선발하며 남원시 청년 인구 외에 순창, 구례, 곡성 등 인근지역의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단기(도전, 5주 이상), 중기(도전+, 15주 이상), 장기(도전+, 25주 이상)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 기간에 따라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참여 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관촌면, 어르신 힐링 목재 체험행사

관촌면이 최근 방동경로당에서 방동마을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힐링 목재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실버힐링 목재 체험은 임실목재문화체험장(관촌면 소재)이 노인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목공 활동으로 경로당 주변 평상 및 데크를 설치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농촌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힐링 목재 체험은 목공 활동으로 노인들의 우울감 해소 및 기억력을 향상에 도움이 된다.

경로당 주변에 쉼터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만족감과 심리적 안정을 얻고, 노인들이 직접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근로의욕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씨름 전지훈련장 메카로 '인기' | 총 18개팀 145명 훈련

임실군 종합경기장 내에 위치한 씨름장이 맞춤형 전지 훈련장으로 전국 씨름선수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전국 최고 씨름선수단의 전지훈련 메카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총복 청주 금천초를 비롯한 초등학교 10개 팀 79명이 전지훈련을 다녀갔다.

또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대전 계룡디지털고를 비롯한 8개 팀 66명이 임실군 씨름장에서 전지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지난 12일 씨름장을 찾아, 전지훈련에 참여한 선수들과 관계자를 격려하고 훈련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20년 씨름장 준공 이래 임실군으로 전지훈련을 오는 씨름선수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하계 전지훈련으로 20개 팀 138명이 방문하고, 올해 1월 동계 전지훈련으로 22개 팀 213명이 임실군을 방문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임실군 씨름장을 찾는 선수단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대전 계룡디지털고를 비롯한 8개 팀 66명이 임실 씨름장에서 전지훈련을 갖고 있다. (사진=임실군청 제공)

군은 실내 전용 씨름장 외에도 인근에 수영장, 체력단련실, 운동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함께 모여 있어 전지훈련 장소로 많은 이점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관내 숙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이 가능하고, 푸짐한 아침 식사도 제공되어 참여한 선수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지역을 찾는 전지 훈련팀이 늘어남에 따라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 지역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군을 찾아주시는 씨름선수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훈련과 체류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뜨겁고 열정이 가득 담긴 전지훈련이 결실을 맺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생활체육공원 예초작업

임실군이 생활체육공원을 방문하는 군민과 생활 체육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예초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예초작업은 종합경기장을 포함한 13만1,000㎡ 규모의 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진행됐다.

여름철 무성히 자란 잡초로 인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목적체육관, 국공립 등 이용객들이 많은 체육시설 주변에도 신경을 써 작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져, 작업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운 시간대에는

그늘에서의 휴식, 충분한 수분 섭취 등 폭염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했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 생활체육공원을 방문해 주시는 군민과 생활 체육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리로 환경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굿모션' 과 정책제언 간담회

기후위기·학습권·미디어·신체마음건강 등 제언

남원시는 지난 12일, 굿네이버스 전북동부지부, 이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 과 정책제언 간담회를 가졌다.

'굿모션(Good motion)'은 남원유성중, 남원하늘중, 39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아동참여 조직으로, 권리주체인 아동이 일상 속 아동권리 침해 상황을 스스로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정책으로 제언하는 활동을 통해 아동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이다.

이들은 앞서 남원시 내 아동권리 실태조사로 각 학교와 기관을 방문해 포토보이스(사진을 매개체로 주제를 표현하는 기법), 연령별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제언 방향을 정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후위기, △학습권, △미디어, △신체마음건강 총 4가



지 주제의 정책 제언이 이루어졌으며, 시청 1층 로비에서는 '굿모션'의 올해 활동 내용을 담은 사진 전시회도 함께 진행됐다.

최경식 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아동들의 의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남원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부산역 공략으로 관광객 유치 나서

순창군이 지난 14일 부산·경남 지역의 핵심 교통 허브인 부산역을 방문해 대대적인 관광 홍보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날 순창군 관광마케팅팀장 등 순창군 관계자들은 부산역에 머물며 다각도의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날 설립한 부산역장, 손은숙 영업처팀장, 김용욱 백스코역장 등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순창군의

관광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고 순창군 관광지와 장류축제 홍보영상 송출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순창군은 부산·경남 지역과 관광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부산의 관계자들도 이에 호응해 앞으로 순창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충무공의 정경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경유제한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바람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빛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궁궐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며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